

사회적으로 스마트한 네 도시 이야기

이주현

21 세기 도시는 환경 오염, 자원 고갈, 사회 불평등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동시에 도시는 기술의 진보를 이용한 사회혁신과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도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스마트 도시는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사회 혁신 프로세스로 (social innovation processes) 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도시전환 (smart city transitions)을 다양한 도시 맥락에서 심층 조사하였다. 특히, 혁신으로 스마트 도시 전환이 포용적 도시 형성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사례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통합적 플랫폼 형성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 계획과 구현에 노력한 네 가지 사례 암스테르담, 서울, 포틀랜드, 호치민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각 도시들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 actor 들의 관계를 재강화하여, 각 도시의 목적, 즉 sustainability, equity, affordability 등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암스테르담 케이스는 다수의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self-builder 들이 정보교류, 자원 통합, 프로젝트 확장의 과정을 통해 혁신 기술이 적용된 순환도시 (circular city) 전환 과정을 보여주었고, 서울과 호치민 사례는 중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방향 정보 흐름과 투명한 정보 교류와 관리를 통해 기업과 시민을 참여시켜 도시 서비스가 시민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게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포틀랜드 사례는 주민 주도 플랫폼을 구축하게 하여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전체의 공정한 인프라 서비스 분배를 구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 도시 구축이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각 도시의 사회-기술적 전환으로 봐야 한다는 점과, 도시의 사회 경제적 맥락 위에 만들어진 플랫폼 구축이 스마트 도시 전환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주현은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사업단 소속 연구원으로, 지난 약 17 년간 국제도시전문가로 아시아와 유럽에 소재한 국제기구 및 연구소에서 도시/인프라 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인프라 개발이 야기하는 사회공간 변화, 스마트도시개발의 사회적 성과, 다층적 거버넌스 전략, 녹색성장도시전략 등이다. 영국에서 도시재생 석사와 연구석사 학위를 받고, 네덜란드에서 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기구 (UN-Habitat 등)에서 National Urban Development Strategy, 녹색성장 도시개발전략, 문화도시재생 정책, 스마트 도시재생 및 거버넌스 전략, 기후변화적응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고 연구해왔다. 국제기구에서 technical advisor 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다자협력 (multi-lateral) 프로젝트 기획 및 기금 조성, 다자협력플랫폼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는 국제개발협력, 지역개발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미국 지역의 스마트 도시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맥락에 맞는 정책 및 거버넌스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치고 있다.

일시: 2021 년 6 월 8 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 호